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 : 문학과 인성을 접목한 융복합 교양영어 수업 사례

〈Drama & Film English〉 : A Case Study of English Class as Liberal Education, Converged on Literature and Theatrical Performances for Cultivating Humanities

최정미*, 이호선**

부산가톨릭대학교 트리니타스 칼리지*,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Jeong Mee Choi(rosachoi@cup.ac.kr)*, Ho Sun Lee(ahmlhs@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문학과 연극, 인성교육을 융·복합시킨 교양교과목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 수업 사례이다. 교양교육의 목표가 대체로 ‘보편적 진리 탐구를 통한 지성인 양성’에 둔 교육 현장에 ‘실용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도입되면서 융·복합 교육 방안에 대한 관심이 확장되었다.

이 교과목은 도구로서의 기술 훈련에 초점을 맞춘 영어 회화나 공인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기 위한, 이른바 취업 역량 강화 교과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상황에서, 교양영어 교육에서 영어로 된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논리적 사고와 인식의 폭을 넓히는 훈련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따라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르고자 구상되었다. 학생들의 지성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문학과 짧은 연극 대본을 선정하여 구어체 대사를 암기하며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익히고, 작품 분석과 이해를 통해 문학과 연극에 관한 지식을 함께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어 학습에 폭넓은 지식을 더하였다.

또한, 조별 연극 공연을 통하여 책임감, 협동, 화합, 배려심의 중요성을 스스로 체험하게 하여 인성 함양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융·복합 수업은 교수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수업을 실행하면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참여를 이끌어 도구로서의 영어뿐 아니라 문학과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 중심어 : | 연극 | 문학 | 인성 | 융복합 | 교양영어 수업 |

Abstract

Most universities have been concerned about Liberal Education; whether is it on universal truth, or on training job-specialists? In consequence, the curricula have been reformed and promoted diversely. In this aspect, <Drama and Film English> has been developed as convergence education.

I selected two easy and short texts and tried to make the students practice and memorize the dialogues as many as possible. At the end of the class, the students presented given assignments, with theatrical performance.

This study carried out the research of students' presentation and theatrical performances on the basis of group study, together with a survey of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and lecture evaluation. Therefore it was a exploratory study to check out significance of variables through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students' questionnaires showed the improvement of their English ability, together with their knowledge about literature and drama, cultivating humanities through the theatrical performance. It may be said that <Drama & film English> has achieved multi-functional effects of English class converged literature, theatre and humanities even for one semester.

■ keyword : | Theatre | Literature | Humanities | Convergence | English as Liberal Education |

I. 머리말

1. 융복합 영어교과의 필요성

시대가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에 대한 제고의 필요성이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대부분 대학에서 그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탐색과 성찰을 지속하고 있다. 이화여대 스크랜튼 대학 초대학장 김 혜숙 교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학부 교양교육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 그 핵심 내용을 “21세기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키우는 것”으로, “단순한 인성 교육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마주할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능력을 배양하고, 다른 종교, 문화,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요약한다[1].

한편, 문학평론가이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학장인 도정일 교수 역시 2007년 하버드 대학 학부 교육과정 개편에 사용된 ‘liberal education’의 ‘liberal’이 ‘교양’이란 용어로 번역되면서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었다고 피력했다. 즉,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란 상식적 잡식교육이 아니라 ‘틀에 갇히지 않는 자유로운 탐구와 교육’이다. 틀에 가두고 갇히는 교육이 아닌 틀을 깨고 나가는 교육, 기성의 진리체계, 지식, 진리주장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 지식의 단순 전수와 답습보다는 전수를 넘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상상력, 호기심, 이해력의 자극과 확대- 몇 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 ‘틀을 깨고 나가는’ 교육으로서의 리버럴 에듀케이션, 우리 표현으로는 ‘교양교육’이라고” 설명한다[2].

‘틀을 깨고 나가는 교육’은 곧 열린 교육이고, 혁신교육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동안 교양교육의 목표를 “보편적 진리탐구”를 통한 지성인 양성에 둔 교육현장에 “실용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전문직업인[3]” 양성이란 새로운 과제를 도입하는 과정이 그리 원만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이 두 가지 다른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안으로 커리큘럼을 세분화하거나, 혹은 융합하는 방안이 여론이 모인다. 이를테면 교양교육을 기초교

양교육역량 강화, 취업역량 강화, 글쓰기/국제어역량 강화 등으로 세분화하거나, 교양-전공 연계, 기초학문과 전공 간의 융합이나 학제간의 통합 교과 개발 등의 융·복합 교육이 ‘틀을 깨고 나와’ 사고의 지평을 넓혀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문학에 기초한 융·복합 교육에 관한 김영아의 논문은 융·복합 교육의 개념, 유형과 실제, 그리고 한계와 전망에 이르기까지 융·복합 교육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즉, “융·복합 교육은 기성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창출하고,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길러주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총체적이고 폭넓은 사유 지평 확장을 통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함과 동시에 이성과 감성을 두루 갖춘 전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작용해야 한다. 이는 사람의 세상을, 사람의 무늬(人文)를 그리는 인문학을 통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4].

그런데 일부 대학은 4년제 대학임에도 인문대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인문학 강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교과목 특성상 독해나 어법과 같은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교과에서 지성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논리적 사고 훈련, 인문학적 소양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융·복합 교과로 개설하고, 수업의 목표를 교양교육과 외국어 역량 강화를 병행하여 설정하였다.

2. 연구의 목적

영어와 문학/예술을 융합한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 교과는 도구로서의 영어에 세상과 사람의 공부를 부가하였다. 대학기초교양교육의 중심에 ‘사람과 세상’을 아는 공부와 있어야 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수업은 실용영어의 숙지, 인문학적 사고 훈련, 공연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에 이르는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범국가적 차원으로 확산되

어 급기야 교육부가 2015년 1월 ‘인성교육진흥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유·초중등교육에서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인성교육에 대한 제고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고심하고 있다. 굳이 인성을 따로 떼어 교육시켜야 한다면 그것 역시 기초교양교육의 몫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이 과목에 수강생들의 조별 과제인 연극 공연을 준비할 때 요구되는 인성 덕목 몇 가지를 채택하여 접목하되, 훈육이 아닌 체험을 통해 깨우치는 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영어와 문학/예술(연극)을 융합하고, 인성을 접목한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 수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업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학습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하고, 교수 중심의 일방적 수업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참여하고 체험하는 양방향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흥미, 인식의 변화, 인문학 적 사고와 인성함양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 지 그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융·복합 교과에 관한 시도가 최근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자료 수집이 그리 원활하지 않았다. 영어연극과 통합적 언어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임동연(2006)[5]은 도구로서의 어학학습에 초점을 맞추었고, 교양영어를 중심으로 인문학 적 사유지평 확장을 위한 교양교육을 연구한 정익순(2007)[6]의 연구나 이소희(2015)[7]의 소통과 융합: 영문학 연구자의 분과학문 경계 넘기는 인문학이나 융합에 관련한 논문이긴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의 수업에서 지향하는 어학역량강화/문학/인성을 함께 아우르는 수업의 복합적 의도와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조별학습을 통해 완성한 공연/공연물(영상)과 수강 후 학생들의 설문과 교수 강의 평가 자료에 근거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가 될 것이다.

영어교육 교수방법에 있어 지식지도 구축을 시도한 강문구(2013)나[8] 영어교육에서의 과업중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논한 임희주(2013)[9], 국제스포츠행사를

위한 영어교육 방안을 제시한 김지은, 유호(2015)[10], 스마트 교육을 위한 모바일 학습체제의 간호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김훈희, 정대범(2015)[11], 온라인 대학영문법 강의에서의 교육효과에 대한 박덕재(2012)[12]의 연구에서 보듯 영어교육에 있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융·복합 교양영어 수업사례는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에 대한 또 다른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 수업

1. 영어 학습과 문학/연극의 이해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는 교양교과 5개 선택 영역 중 <언어와 세계화> 영역으로 2학점/2시수의 이론 수업으로 영미 연극, 뮤지컬, 또는 영화 대본을 활용하여 문학/예술의 기본 지식과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동시에 함양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복합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고전문학과 그 청취 자료와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과 연극/문학을 융합하였다. 연극이나 영화는 장르적 특성상 구어체 문장을 익혀 말하기에 응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연극이론과 문학 작품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문장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 수업은 한 학기 15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전반부(8주차)까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햄릿』(*Hamlet*)을[13], 중간고사 이후부터 기말고사(15주차)까지 마틴 포드(Martyn Ford)의 *Five Short Plays*를[14] 선정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햄릿』의 경우 영어영문학과 전공 수업에서도 난이도가 제법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 강좌의 교재는 현대 영어로 쉽고 흥미롭게 개정된 옥스퍼드 출판사의 북웜 시리즈(Oxford Bookworms)에서 채택하여 난이도를 상당히 낮추었다. 대신 연극 대사를 가능한 많이 암기하여 말하기에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였다.

그런데 저학년 학생들을 위해 쉽게 제작된, 짧고 단순한 대사로 이루어진 『햄릿』으로 셰익스피어 원작의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극 이

표 1. 단계별 수업 내용

단계	교재	학습내용	기간	평가	
1단계	영어 학습	개작 Hamlet (난이도 ↓)	연극대본으로 회화표현 익히기 발음/억양 연습 CD를 통한 듣기 훈련	1-8주차	지필고사 (2회)
		Five Short Plays	발음/억양/대사 암기(말하기) 대사를 활용하여 →)토의문항도출	9-15주차	
2단계	문학/연극이론	원작 Hamlet	연극이론 개관 작가분석 연극/영화 공연물 감상 (토론)	1-8주차	
3단계	연극/예술	Five Short Plays	조별 작품분석 발표 및 연극공연	9-15주차	
	인성함양		체험학습을 통한 창의인성, 협동, 화합 배려심 증진		

론, 특히 비극의 개념과 셰익스피어와 그의 작품에 관한 이론 강의를 병행하고, 별도의 멀티자료를 활용하여 강의의 깊이를 조절하였다. 그 결과 수강생들은 교재의 내용과 이론, 영상자료를 접목해 셰익스피어라는 거목의 작가와 작품, 문학/연극을 감상하면서 영미문학과 문화, 미약하지만 서양 중세사에 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이는 임후프(M. Imhoof)가 “대본을 읽고 연극을 만드는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그 언어에 대한 문화친밀감을 증가시켜 영미문화의 이해를 증진시킨다”고 밝힌 것에서도 입증할 수 있다[15].

수업 시간에 교재에 첨부된 원어민의 녹음 CD를 청취하면서 작품을 읽고, 주요 단어의 발음, 강세, 억양을 숙지하였다. 녹음 CD는 실제 무대 공연 대사처럼 제작되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은 작품을 읽고 청취하며 나름대로 연극 장면을 상상할 수 있었다. 각 막이 끝날 때마다 영상을 관람하면서 본인들이 상상했던 장면이 영화나 연극으로 어떻게 재현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수업에 채택한 주 영상 자료는 『햄릿』 중 원작에 가장 충실하게 제작된 작품으로 알려진 로렌스 올리비에(Laurence Olivier) 감독/주연 영화로[16], 그 주요 장면을 통하여 고전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예컨대, 햄릿의 독백이나 클로디우스(Claudius)의 기도 장면, 극중극(a play in the play) 등 주요 장면을[17] 바탕으로 문학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주요 대사에 숨어 있는 함축적 의미를 곱씹어 봄으로써, 도구로서의 영어 학습을 넘어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의 폭을 문학과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했다.

요약하자면, [표 1]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눈으로 읽

고 귀로 듣는 영어 학습 후(1단계/ 영어 학습 단계), 대사를 음미하고, 작품 분석을 통해 문학적 접근을 시도하고(2단계/ 문학 이해 단계), 문학 텍스트가 연극/영화로 변형된 공연물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3단계/연극 감상 단계). 그리고 지필 시험을 통하여 영어 표현을 잘 숙지하고 있는가(1단계), 문맥상 영어 표현의 함축적 의미를 함께 이해하는가(2단계), 희곡 『햄릿』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가(3단계)에 대해 평가하였다.

2. 발표와 공연을 통한 자기 주도 학습

중간고사 이후 7주간은 마틴 포드(Martyn Ford)의 *Five Short Plays*를 선정하여 조별로 연극공연을 하였다. 이 교재는 주 단어 400개를 활용한 총 4,828개 단어에 불과한, 난이도가 아주 낮은 교재이다. 5개의 작품-〈The Robbery〉, 〈The Right Thing to Do〉, 〈Canada Can Wait〉, 〈Salt〉, 〈Slow Food〉-을 5개 조로 나누어 한 작품씩 발표하였다. 짧은 발표지만 1, 2부로 나누어 조원 중 1명(혹은 2명)이 작품 내용과 공연 준비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연극공연에 모든 조원이 출연하였다. 발표/ 공연 후 나머지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토론 수업을 하였다. 5개 발표는 모두 3주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조별 발표가 끝날 때마다 교수의 침착지도와 의견을 간략하게 전달하였다.

1주차 공연에서, 〈The Robbery〉를 맡은 조는 PPT에 대사를 자막으로 삽입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에 극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대사를 완벽하게 암기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그러나 무대 등퇴장을 강의실 문을 사용하며 복도까지 활용한 점은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점이었다.

<Canada Can Wait> 공연 조는 PPT를 활용하여 녹음된 원어민 대사에 우리말 자막을 넣어 인형극 형태로 동영상 제작하였다. 6명의 등장인물을 도화지에 그린 후 나무젓가락에 오려 붙여 일렬로 세웠다. 상의에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적어 각 인물의 대사에 맞춰 화면 아래에서 조원들이 보이지 않게 젓가락을 움직였다. 사실 이 연극은 액션보다 대화 중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극의 내용과 어울리는 콘셉트라 할 수 있다.

1주차에 교실에서의 실제 공연과 동영상 제작 발표, 두 방식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조원들의 발표는 모두 실제 공연이 아닌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여주었다. 아무래도 분장, 조명, 소품이 미흡한 교실에서의 연극보다 동영상 제작을 선호하였다. 동영상에서의 무대 배경은 학교 건물이기도 하고, <Slow Food>를 맡은 조는 외부 가게를 빌려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패스트푸드 가게의 분위기를 한껏 발휘하기 위하여 소품/의상도 제법 구색을 갖추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학생들은 열의를 가지고 발표와 공연을 준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였다.

공연과 더불어 작품 분석이나 준비과정 이외에도, 짧고 쉬운 연극 대사를 응용하여 토의 유형에 맞춰 퀴즈 문항을 만들어 문법이나 어휘를 숙지할 수 있었던 것도 참신한 아이디어였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과 관련된 퀴즈를 내기도 하고, 정답을 도출한 학생에게 학생식당의 식권을 선물하기도 하며 학생들 스스로 수업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이며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수업의 형태는 이론수업이지만 담당 교수의 강의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그리고 체험학습을 병행함으로써 교수와 학생 간의 양방향 수업을 도출할 수 있었다.

3. 조별 공연을 통한 인성교육 함양

이밖에도 *Five Short Plays*에 수록된 극 내용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상황을 연극을 통하여 재현해보고 유사 상황이 닥칠 때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학생들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하

면서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의 장이 펼쳐졌다.

예컨대 <*The Right thing to do*>는 길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다루고 있다. 길거리에 한 남자가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저 제각기 자기 생각만 늘어놓고 우왕좌왕 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다가온다. 그녀는 이 남자가 분명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 채고 주변 사람들에게 긴박하게 그 남자의 맥박을 측정하게 하고, 앰블런스를 부르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쓰러진 남자의 상의에서, '심장병약, 증상이 있을 때 1알 복용하십시오'(12)라고 적힌 약병을 발견하고 그에게 먹였고, 그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던 여자는 말없이 사라져 버린다. 남아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색을 낸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매우 급하게 명령조로 말한 그 사라진 여성을 맹비난한다. 그녀는 지시만 했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투덜거린다(14). 과연 그럴까? 한번 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Canada Can Wait*>에서 주인공 크리스(Chris)는 외국으로의 여행을 꿈꾸며 용기를 내어 캐나다로 떠날 준비를 하고 등장한다. 그를 본 모든 친구는 그저 (비)웃으며 엉뚱한 성격의 소유자로 물고 간다. 크리스는 주저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동경하던 캐나다여행을 포기한다. 결국 그는 "Canada can wait!"라며 얼버무린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간섭으로 자신의 포기를 합리화시켜버린 것이다. 연극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물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경우라면 그저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모험을 해 볼 것인가?"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이밖에도 <*Salt*>는 소금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여 되파는 과정을 통하여, 사재기가 이루어지는 교묘한 상황을 극화하였고, <*Slow Food*>는 현대의 '빨리빨리' 문화를 풍자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는 손님들의 성화에 직원은 지칠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직원이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 뛰쳐나가고, 마지막으로 남은 직원마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거리로 뛰어나간다. 태양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한 그녀는 자신에게도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했다며 심호흡을 한다.

위의 작품에서의 상황은 우리 사회에서도 결코 낮설지 않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고민하며 자기반성의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발표와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성은 물론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 화합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설문과 강의평가에서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훈육이 아니라 체험을 통한 자생적 인성교육이라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III. 수강생 자기 평가와 교수 강의평가

수업을 마친 후 작성한 수강생들의 설문지와 강의평가를 참고하면 영어를 단순히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획일적인 수업의 차원을 넘어 문학과 예술, 문화를 융합한 수업이어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학생 스스로 만든 공연을 통해 책임감과 화합의 중요성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수강생 28명 중 26명으로, 설문의 응답은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2]는 설문문항과 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설문에 대한 응답 중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긍정적인 응답으로 볼 때 설문 4 ‘자신이 조원들과 필요한 역할을 공유하였는가?’ (92.31%)와 설문 7 ‘연극대사 암기를 통한 영어학습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84.62%), 설문 8 ‘연극대사가 영어회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92.31%)는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본 교과목에 대해 수강자들 다수가 조원과의 역할 공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며, 연극대사를 익히고 암기함으로써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고 영어회화에도 활용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들 설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이 각각 1.73, 1.85, 1.85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사에 위치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설문 2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해결능력

표 2. 설문문항 및 결과 요약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보통(3)	그렇지 않다(4)	전혀 그렇지 않다(5)	평균	표준편차
설문 1	조별 연극을 준비하면서(이하 이문구 생략)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는가?						
응답분포	6명 (23.08%)	13명 (50%)	7명 (26.92%)	0명 (0.00%)	0명 (0.00%)	2.04	0.72
설문 2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는가?						
응답분포	3명 (11.54%)	12명 (46.15%)	11명 (42.31%)	0명 (0.00%)	0명 (0.00%)	2.31	0.68
설문 3	자신의 끼(혹은 자신도 모르는 잠재적 능력/열정)가 발견/발휘되었는가?						
응답분포	2명 (7.69%)	7명 (26.92%)	13명 (50%)	4명 (15.38%)	0명 (0.00%)	2.73	0.83
설문 4	자신이 조원들과 필요한 역할을 공유하였는가?						
응답분포	9명 (34.62%)	15명 (57.69%)	2명 (7.69%)	0명 (0.00%)	0명 (0.00%)	1.73	0.60
설문 5	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응답분포	5명 (19.23%)	12명 (46.15%)	9명 (34.62%)	0명 (0.00%)	0명 (0.00%)	2.15	0.73
설문 6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했는가?						
응답분포	7명 (26.92%)	9명 (34.62%)	10명 (38.46%)	0명 (0.00%)	0명 (0.00%)	2.12	0.82
설문 7	연극대사 암기를 통한 영어학습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응답분포	8명 (30.77%)	14명 (53.85%)	4명 (15.38%)	0명 (0.00%)	0명 (0.00%)	1.85	0.67
설문 8	연극대사가 영어회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응답분포	6명 (23.08%)	18명 (69.23%)	2명 (7.69%)	0명 (0.00%)	0명 (0.00%)	1.85	0.54
설문 9	연극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가 있었는가?						
응답분포	5명 (19.23%)	11명 (42.31%)	9명 (34.62%)	1명 (3.85%)	0명 (0.00%)	2.23	0.82
응답자수	26명						

이 향상되었는가?’ (57.69%), 설문 6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증가했는가?’ (61.54%), 설문 9 ‘연극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가 있었는가?’ (61.54%)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약간 넘는 결과를 보인다. 이 결과는 학생들 대부분이 연극 이론이나 연극적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설문 3 ‘자신의 끼(혹은 자신도 모르는 잠재적 능력/열정)가 발견/발휘되었는가?’ (34.62%)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로 연극적 흥미가 없거나 성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자신의 끼를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 교과 및 연극에 대한 이해 부족, 영어에 대한 어려움에 기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극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영어에 대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한다면 현재 설문결과와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교과목 개발방향 설정에 있어 대상 학생들의 수준을 고

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조별과제를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 배려심, 약속의 중요성, 타인 인성 판단능력과 같이 자기 주도적 인성 함양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기평가를 함께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정리하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책임감(92.31%), 협동심(92.31%), 배려심(84.62%), 약속의 중요성(88.46%), 타인 인성 판단능력(80.77%)의 5가지 사항의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였다.

한편 이들 인성 함양 요소 간의 상관관계는 [표 4]과 같았다. 책임감에 대한 응답과 협동심 및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의 상관관계가 각각 0.49, 0.57로 나타나 책임감을 중심으로 볼 때 협동심,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답변하였다. 협동심과 책임감, 배려심 및 약속의 중요성, 타인 인성 판단능력에 대한 응답의 상관관계는 0.49, 0.71, 0.62, 0.32로 나타나 협동심을 중심으로 볼 때 책임감, 배려심, 약속의 중요성, 타인 인성 판단능력에 대한 긍정적 변화

표 3. 조별과제에 따른 인성 함양 요소 개발의 자기 평가 결과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보통(3)	그렇지 않다(4)	전혀 그렇지 않다(5)	평균	표준편차
설문 11	조별과제를 하면서 아래의 사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는가?						
책임감	9명 (34.62%)	15명 (57.69%)	2명 (7.69%)	0명 (0.00%)	0명 (0.00%)	1.73	0.60
협동심	8명 (30.77%)	16명 (61.54%)	2명 (7.69%)	0명 (0.00%)	0명 (0.00%)	1.77	0.59
배려심	6명 (23.08%)	16명 (61.54%)	4명 (15.38%)	0명 (0.00%)	0명 (0.00%)	1.92	0.63
약속의 중요성	11명 (42.31%)	12명 (46.15%)	3명 (11.54%)	0명 (0.00%)	0명 (0.00%)	1.69	0.68
타인 인성 판단능력	5명 (19.23%)	16명 (61.54%)	5명 (19.23%)	0명 (0.00%)	0명 (0.00%)	2.00	0.63
응답자수	26명						

표 4. 인성 함양 요소 간 상관관계 표

	책임감	협동심	배려심	약속의 중요성	타인 인성 판단능력
책임감	1	0.49***	0.15	0.57***	0.10
협동심	0.49***	1	0.71***	0.62***	0.32*
배려심	0.15	0.71***	1	0.50***	0.50***
약속의 중요성	0.57***	0.62***	0.50***	1	0.47**
타인 인성 판단능력	0.10	0.32*	0.50***	0.47**	1

***: 1%수준에서 유의함, **: 5%수준에서 유의함, *: 10%수준에서 유의함

가 함께 있었음을 답변하였다. 배려심과 협동심, 약속의 중요성, 타인 인성 판단능력에 대한 응답은 상관관계가 0.71, 0.50, 0.50으로 나타나 배려심을 중심으로 볼 때 협동심과 약속의 중요성 및 타인 인성 판단능력에 대한 긍정적 변화가 함께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답변한 경우 다른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적 변화를 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배려심과 함께 타인 인성 판단능력과의 높은 상관관계(0.47)를 보여 약속의 중요성을 타인인성 판단에 활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 [그림 1]로, 10% 유의수준¹⁾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소 간의 관계만 표시하였다. 이 관계에서 흥미로운 것은 책임감의 함양이 직접적으로 타인 인성 판단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나 협동심과 약속의 중요성과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타인 인성 판단능력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배려심의 함양도 타인 인성 판단능력과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만약 이들 관계가 선·후행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책임감과 배려심의 함양을 통해 협동심 함양과 약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증가하게 되며 이를 통해 타인 인성 판단능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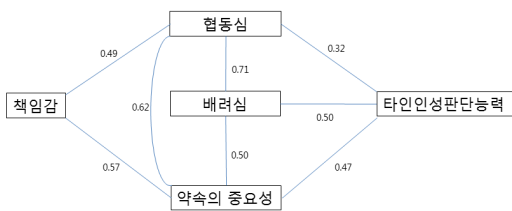


그림 1. 인성 함양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요약

따라서 만약 이들 요소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모형이 있었다면 이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이들 인성 함양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향후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이들 관계를 설

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본 연구자가 담당한 교양교과목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 수업에 관해 살펴보았다. 교과목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해당 수업은 영어와 문학/연극을 접목한 융·복합 수업이다. 보통 영미 드라마나 영화매체를 다루며 이루어지는 ‘스크린 영어’ 또는 유사 교과는 대사 중심의 회화수업이 주를 이룬다. 또한, 영문학 전공 수업에서 희곡이나 연극, 혹은 소설을 각색한 영화를 함께 다루는 융·복합 수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양강좌에서 영어와 문학/연극을 접목해 영어 학습과 동시에 문학과 영미문화까지 살펴보는 수업은 융·복합 교양교육의 시험적 방안이라 본다.

이 과목에서 수강생들은 극작품을 통하여 문학이론을 이해하고 대사를 암기하면서 발음과 억양을 연습하고 실생활에 유익한 표현들을 익힐 수 있었다. 조별 공연(15~20분 내외의 짧은 연극)과 발표 준비를 위한 공동 작업을 통해 책임감, 화합과 협동심의 중요성을 알았고, 자기주도 학습도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발표에 대해서도 조별로 질문이나 평가를 도출해냄으로써 수업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였고 자신감이나 흥미가 높아졌음을 설문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설문지에 대한 대답이나 강의평가 결과, 그리고 학생과의 개별 면담을 비추어 볼 때,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의 성과를 일구어낸 것으로 보인다. ‘설문지 12. 이 수업에 대한 수강 이전의 자기 생각과 이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긍정적인 대답을 도출하면서 이 수업이 시작과 끝이 다른 수업임을 입증하였다. 학생들의 대답을 요약하면, 영어를 생활화하며 더 친숙하게 되었고/ 직접 연극도 해보고 영화도 보면서 입체적인 영어공부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았고/ 연극을 통한 영어공부는 아주 흥미롭고 영어가 향상되었다고 기술했다. 또한, 수강 이전에는 발표

1) 표본의 수가 26개로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다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도록 하고자 10%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가 자신 없었는데 수강 이후에 자신감이 생겼고, 조별 연극을 통하여 책임감, 협동심을 길렀다고 답했다. 특히 영어로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편하다고 답한 학생도 있었으며, 영어학습의 다른 접근 방법으로 유익했다고 답했다. 결론적으로, ‘수강 이전: 연극이란 무엇일까?’ ‘실생활과 관련이 있을까?’와 같은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수강 이후: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흥미를 느꼈다’고 대답했다.

강의평가에서도 수강생들은 수업에 대해 흥미를 느끼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답안을 도출했다. 즉, 발표 준비과정이 즐거웠다/ 영어를 싫어했지만, 영어와 연극을 함께 배우니 재미있고 할 만 했다/ 연극을 해 본 것도 처음이지만 영어연극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 할 수 있었다 / 연극영화를 통해 영어를 배우게 된 경험은 아주 색다르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연극 대사가 생활 속 영어에 활용될 수 있는나는 의심을 했지만, 생활 속 유용한 표현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연극을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는 것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업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이러한 객관적 분석 이외에 학생들의 수업참여도나 발표력 향상능력, 그리고 영어에 대한 관심이나 자신감에서도 담당교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변화의 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3주 간에 걸친 발표 수업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발표와 공연에 임하는 태도도 진지해졌으며, 공연물에서도 후반부로 갈수록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질적 향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는 학생들이 이전의 공연물에 대한 장점과 개선점을 자기 주도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공연물에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 습득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는나는 의구심은 본 연구자에게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교과목은 인문대가 부재한 우리 대학에서 영어를 통한 인문학 함량을 위한 교육지책으로 개발한 강좌다.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의 영어교육 역시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개발하고 반성적 사고능력의 함양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 문제

해결 능력, 총체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18]고 보기 때문이다.

이 수업을 통하여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도구로서의 외국어 역량 강화와 지성인/교양인으로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아우르는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었다고 본다. 영어와 문학, 인성을 접목한 융·복합 교과 <연극영화로 배우는 영어>는 교수의 일방적 강의가 아닌 양방향 수업을 지향함으로써 ‘틀을 깨고 나와’ 소통하는 수업, 자기 주도 학습을 끌어냈다. 이러한 성과는 소규모 수업이었기에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수준별 수업, 소규모 수업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향해야 할 필수 여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수업이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3년 남짓 이어온 수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적 자료 수집이나 포괄적 분석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애초에 목표했던 융·복합 교양 영어수업의 효과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의 성과도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좀 더 충분한 자료에 근거한 질적 분석 과제는 다음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혜숙, “학부교육의 수월성 제고와 글로벌 전략 - 스크랜튼 대학의 경우-,” 한국교양교육학회/대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기초교육원 추계학술대회, 2012.
- [2] 도정일, “[특별기고] 문학교육이 최고의 인성교육,”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69722.html>.
- [3] 이숙정, 이수정,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역량기반 교양교육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2호, pp.11-42, 2012.
- [4] 김영아, 문학 기반 융·복합 교육 방안 연구 -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5] 임동연, 영어연극과 통합적 언어기능에 관한 영

향-총체적 언어 접근법을 중심으로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5.

- [6] 정익순, “인문학적 사유지평의 확장을 위한 교양교육: 대학 교양영어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Vol.1, No.2, pp.135-148, 2007.
- [7] 이소희, “소통과 융합: 영문학 연구자의 분과학문 경계 넘기,” 새한영어영문학, 제57권, 제4호, pp.81-99.
- [8] 강문구, “영어교육의 교수방법 지식지도 서비스를 위한 온톨로지 모델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11, pp.502-509, 2013.
- [9] 임희주, “과업중심(task-based) 프로그램 개발: 영어마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7, pp.440-451, 2013.
- [10] 김지은, 유호, “국제 스포츠 행사를 위한 영어교육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6, pp.589-596, 2015.
- [11] 김훈희, 정대범, “스마트 교육에 기반 한 전문대학생들의 간호영어 학습에 대한 학습 만족도와 학업 성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9, pp.621-630, 2015.
- [12] 박덕재, “온라인 대학영문법 강의에서 상호작용과 정의적 요인이 교육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4, pp.510-519, 2012.
- [13] W. Shakespeare, *Hamlet Oxford Bookworm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14] M. Ford, *Five Short Plays Oxford Bookworms*,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15] 신윤경, *영어연극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신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2002.
- [16] W. Shakespeare, *Hamlet DVD Produced & directed by Laurence Olivier*, 2010.
- [17] W. Shakespeare, *Hamlet edited by Harold Jenkins*, London: Methuen, 1982.
- [18] 정익순, “인문학적 사유지평의 확장을 위한 교양교육 - 대학 교양영어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구, 제1권, 제2호, pp.135-148, 2007.

저 자 소 개

최 정 미(Jeong Mee Choi)

정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트리니타스칼리지 조교수

<관심분야> : 영미드라마, 영어교육

이 호 선(Ho Sun Lee)

종신회원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기업재무